

‘밀교종합문화센터’ 건립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내년 착공... 역사 재현·체험공간으로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이 한국밀교문화의 역사를 조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밀교종합문화센터를 진각종 현 총인원 청사 자리에 건립한다.

진각종이 밀교종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추진중인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가칭·이하 진각문화전승원)은 600여명의 대지에 지하3층 지상 6층(연면적 4천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경 공사에 들어가 200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내부는 한국밀교의례재현관(1층)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관(2·3층),

한국밀교복지원(4층), 한국불교문화콘텐츠센터(5층), 진호국가 근분도량(6층) 등을 갖춰 명실상부한 밀교종합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4천여평에 달하는 전승원 전체를 삼국유사에 근거, 신라시대 호국 밀교도량인 사천왕사가 들어섰던 신유립 공간 원형 배치를 재현한 신(新) 신유립 방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1층에 들어설 한국밀교의례재현관은 신라, 고려, 조선의 밀교의례를 재현할 수 있는 전시장 겸 행사

장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번 전승원에 주 공간이 될 진각문화전승관은 한국밀교문화의 역사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박물관 형식으로 꾸며지며 아울러 공연장 시설도 마련된다.

한국밀교복지원에서는 고려시대 밀교복지기관인 ‘진각해민서’를 고증 재현해 놓고 각종 불교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센터도 눈여겨 볼만한 시설이다. 이 곳에는 밀교문화체험실을 비롯해 밀교의례를 디지털화시켜 밀교문화를 직접

논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춰 관광객현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맨 꼭대기층에는 대법당 성격의 도량을 만들어 밀교법회 의식과 진각종의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한국밀교문화의 국제화를 통한 세계밀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밀교우의회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한다.

200여원이 소요될 총 공사비는 종도들의 성금 등 종단 부담금(70%)과 국고지원금(30%)으로 메워진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밀교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문화복지에 중심이 될 종합도량을 조성하는 대차분사”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10월 열리는 종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9월 24일 단양 광범사에서 봉행된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법회'에서 정산천대중 총무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

천대중, 생태파괴 감시·멸종위기종 보호 등 결의

천대중(총무원장 정산)이 소백산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천대중은 생태파괴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에 9월 24일 단양 광범사(주지 경)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스님, 이하 운동본부) 결성법회에서 상임고문 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산 지킴이들은 본분에 걸맞는 전문지식과 훈련을 쌓고, 소백산 동물과 서식생물의 생태연구도 병행해 환경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부장 무원 스님은 창립선언문 낭독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으니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소백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발대식을 마친 후 지킴이 회원들은 소백산 연화봉에 올라 쓰레기를 줍는 등 자연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운동본부는 △생태파괴 감시 및 저지 △환경생태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지도자 양성 △생태 연구조사 및 세미나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출판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법화경 사경 독송대법회

세계대각법회, 부처님 세안의식 봉행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통해 한 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대규모 법회가 열렸다.

세계대각법회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법화경 사경 독송 대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는 만달라이 사원 마하무니파고다에 봉안된 4m 크기의 '마하무니' 세안 작화를 맡고 있는 예도 스님 집전으로 미얀마 전통 불교의식인 부처님 상호 세안의식도 함께 봉행된다.

마하무니 파고다는 1854년 민둔왕대 건립됐으며 만달라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국보급 탑이다.

세계대각법회회 회장 도림스님(법화경사 주지)은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당면 과제인 평화 통일을 발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서예가 1000여명이 쓴 <한글 공제 법화경>과 <한문 예서체 법화경> 전시회를 비롯해 호국 영령을 위한 추모제, 통일기원 음악회 등도 열린다.

한편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남북한 수재민 돕기와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전달된다. (02)326-1331

김주일 기자

태고종 백련사 산사음악회

태고종 흥동백련사(주지 설산)는 10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태고종단의 후원으로 주된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코미디언 남보원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주현미, 설운도, 김중환, 이수나, 리미티드, 임석범, 바라솔리스트앙상블(남주홍성중장단), 강태선(해바라기 객원싱어) 등이 출연해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을 선사한다.

백련사는 식전 행사로 대중스님이 직접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하고 백련사 감로합창단이 찬불가 음성공연을 올려 백련사와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연출한다. (02)302-0288

대승종 수륙제·방생 법회

대승종(총무원장 청하)은 10월 29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중구 뿌리공원에서 '종단 수륙제 및 방생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산재 시연에 이어 총무원장 법문, 방생 순으로 진행된다.



민간인 최초 군사찰 주지 탄생

군종교구, 국방대 법당주지에 토진 스님 임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왼쪽)을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로 위촉하고 9월 28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간인 성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군사찰 주지가 탄생했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에서 종교활동을 허가받은 민간인으로 그동안 군법사가 상주하지 않은 군사찰의 법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사찰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주지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9월 28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신설 예정인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에 서울 수곡사 주지 토진 스님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실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대학원 법당은 현재 부대장이 창고 건물을 활용해 법당 건립을 허락한 상태. 토진 스님은 연말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낙성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을 군사찰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군사찰에 대한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군사찰 신설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어 군포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공식 등록된 법당은 모두 406개, 군승은 136명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750개정도가 될 것으로 군종

교구는 추정하고 있어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군법당이 대다수다.

신임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 토진 스님은 "군법당을 사찰에서 후원해 보았지만 후원 가지고는 군불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도량을 잘 꾸며서 수곡사 신도회와 함께 법당을 운영해 지역 사찰과 군사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구와 협조해 군포교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사찰 주지 스님을 군사찰 주지로 위촉해 군포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창고 건물 리모델링
연내 낙성법회 열 계획"
군포교 새 활력소 기대

국방대학원은 정예 고급 장교의 육성을 하는 대학원 개념의 군교육기관으로 현재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소령급 이상 고급 장교 1,100명이 재교육 중이다.

고급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간다는 점에서 군포교 거점이지만 그동안 법당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토진 스님 주지 위촉으로 국방대학원 법당 신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독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법당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 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법,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독교를 연결. ▷군법당 기부 후원: 낮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당 위원: 소외된 군법당을 위한.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양씨 후원 서기모니불상(계교: 문) 문의: 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양측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협을 방지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인다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핵무기 확산방지 문제인데 세계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고자 하는 나라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 번영을 위한 일이나 합의하여 '핵 평화헌장'을 만들어 세계가 평화용으로만 공동사용, 공동관리로 UN기구를 통해 실행하기를 제의합니다. 이 방법이 6자회담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불리함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세계평화 중심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층짜리 건물도 좋지만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응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보임이요,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려 왔다(마태복음 10장34절)는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니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계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이 강연을 들으시고 토론하기를 청합니다. 더욱 예를 들자면 카톨릭 성전 마태오 10장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왔다 하고, 또 35절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고도 하였으니 맞선다 함은 부모가 타종교를 믿을 때 그 칼을 들이대며 자기 교를 믿으라고 맞서 믿지 않거든 그 칼로 부모를 해치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니 이는 부모에 불효막중한 것을 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오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교리들이 결국 전통 부모조상에 대한 효도사상 등 미풍양속을 파괴해 왔다 하겠고, 또 자기교를 폐기위해 칼을 쓰라고 할 때에는 필요하면 총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여 이 세상을 기독교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는 아말겟돈이라는 무서운 세계전쟁 또는 우주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어 있다니 예수는 성경 해설에서 '평화의 왕' 이라지만 오히려 전쟁왕 그것도 우주 전쟁(광?)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연을 받아들이신다면 외람되오나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宇宙의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日本國のお寺法會でも要請 あれば 参上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 **분회가입 안내** :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영여숙달자 환영) 집회 추후 통지.
● **목적** : 세계평화 센터를 건립, 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세계적 활동을 하려 함.
이 일을 국내외 유지분들께서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찬조 및 광고성금 뜻이 있으신 분>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 막강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토론을 신청하는 법! 토진 스님! 자아가 기독교계가 어찌 나올까? 점잖게 응해줄 것인가? 꼬리를 빼 달아날 것인가? 흥미진진!! 폭류도!! 호호탕탕!! 세계 최초의 쟁론 기대하시라 천하가 주시하리!!

(저 실론의 '파이나두라' 대논쟁(기독교와 불교)은 세계평화문제가 아닌) 세계평화 정토회 일동백

세계평화정토회 대표 법천 학산 합장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직통 011-9230-2192